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크루즈 오토메이션 회사의 뉴욕주 첫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 개시 신청 발표

*자율운행 자동차 시험에 대한 FY 2018 법안 승인으로 2018년 초 맨해튼에서의 지속성
시험이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와 크루즈 오토메이션(Cruise Automation) 회사에서 2018년 초 뉴욕주에서의 완전 자율모드 자동차에 대한 첫 지속성 시험 개시를 신청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율주행기술 테스트를 허용하는 Cuomo 주지사의 최근 [법안](#)에 따라 GM과 크루즈사는 지오펜스(Geofence) 지역을 정하고 지도 만들기를 시작한 맨해튼에서의 시험 개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운전석에 앉아 운행을 감시하면서 성능 평가를 진행하는 엔지니어와 보조석에 앉은 조수를 포함합니다. 이 작업을 지원함으로써 크루즈사는 뉴욕에서의 존재감을 넓히고 뉴욕시에서의 직원군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시간 절약과 생명 지킴이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단한 신기술의 미래에 관하여 GM 및 크루즈사와 협력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혁신의 정신이 뉴욕을 정의하며 우리는 우리의 경제를 이끌어 앞으로 나가게 하는 다음 세대의 훌륭한 기술 발전의 잠재력을 가진 이 첨단 산업의 선두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FY 2018) 예산에 포함된 법안은 뉴욕에서 시험적 계획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시험을 허용합니다. 크루즈사의 시험 계획은 뉴욕주에서 4등급 자율주행 자동차의 첫 시험이 될 것으로서 미래의 뉴욕주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기회를 가져오고 전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혁신의 중심으로서의 뉴욕의 역할을 공고하게 합니다.

크루즈 오토메이션 CEO Kyle Vog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시험은 자가운전 자동차의 대량 확산 시기를 앞당길 것입니다. 뉴욕시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의 하나이며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의 소프트웨어를 보여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훨씬 빨리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와 협력하여 뉴욕에 다음 세대의 도시 교통 해결방안을 가져다줄 것을 기대합니다.”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와 주 경찰청(State Police)은 크루즈사와 GM과 협력하여 모든 시험이 해당 안전, 차량 및 보험 요구사항에 부합되게 할 것입니다.

올해 6월에 아우디 미국 자회사(Audi of America Inc.)가 뉴욕주에서 첫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전](#)을 시행하였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가 해당 자동차를 시험 운전해보았습니다. Hochul 부지사는 6월에 또 버펄로대학(University of Buffalo, UB)이 캠퍼스 도로에서 시행한 캐딜락(Cadillac) SUV의 자율주행 시험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시범운전은 워싱턴 디시에 기반을 두고 버펄로대학을 포함한 전국의 90개 이상 대학교를 대표하는 대학교통센터위원회(Council of the University Transportation Centers)의 연례 여름총회 행사의 일부였습니다. 9월에 캐딜락은 고속도로에서 뉴욕시를 횡단하는 첫 공식적인 자율 운전 시험에 착수하였습니다. 시험에 사용한 차량은 첫 고속도로 자율운전 보조시스템인 슈퍼 크루즈(Super Cruise) 기술을 장착한 캐딜락 CT6였습니다. 이것은 뉴욕시 도로에서 공식적으로 운전한 첫 자율운행자동차이기도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운송기술 혁신을 포용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때문에 Cuomo 주지사가 뉴욕주를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과 연구의 선두위치에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세 번의 자율자동차 시범운전에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율화 산업과 우리주 경제를 돌파할 직전까지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크루즈 오토메이션과의 협력 관계는 우리가 미래로 향하는 고무적인 진전입니다.”

맨해튼 자치구 대표 Gale A. Brew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시험장으로 이상적인 곳입니다. 우리는 규모와 복잡성에 있어서 비할 데 없는 거리 구조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제너럴 모터스와 크루즈 오토메이션에서 최종적으로 이 기술을 이곳에 가져와 시험하고 개발하는 데 적합합니다. 저는 이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도록 길을 내어주는 법안을 밀어준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리며 우리의 미래가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데 대해 자량과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국 70여 개의 첨단 기술 회사로 구성된 무역 협회인 테크넷(TechNet)의 북동부 지역 전무이사 **Matt Mincie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크루즈 오토메이션 회사와의 협력 관계는 뉴욕주가 진지하게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엮파이어 스테이트에 도입하여 안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이 기술을 시험하는 데 선두 역할을 하려 함을 증명합니다. Cuomo 행정부가 선두 지휘하는 이런 정부-민간 협력 관계는 뉴욕주가 재능있는 인력과 첨단 기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벤처자금을 계속 유치할 수 있게 급성장하는 기술 도입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Tech:NYC의 전무이사 **Julie Samuel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시행하는 **GM**과 **크루즈사**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은 뉴욕이 계속하여 기술 산업의 선두에 서게 하는 중요한 진전을 입증합니다. 자치구의 랜드마크에 대한 투자와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과 같은 급성장하는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을 통하여 뉴욕은 미국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노력한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며 뉴욕시는 **GM**과 **크루즈사**를 환영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